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장애인의 복지정보통신 환경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남 진

2001년 12월

제주지역 장애인의 복지정보통신 환경 연구

지도교수 김 진 영

김 남 진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김남진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1년 12월

A Study on the Environment Assis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the Disabled in Jeju

Nam-Ji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in-You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제1장 서론

- 1. 문제제기.....1
- 2. 연구목적.....3

제2장 이론적 배경

- 1. 보편적 서비스
 - 1) 개념.....7
 - 2)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9
- 2. 복지정보통신
 - 1) 개념.....10
 - 2) 대상과 요금제도.....12

제3장 제주지역 장애인의 정보화

-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16
 - 2) 연구방법.....18
 - 3) 조사항목.....20
- 2. 일반적 현황
 - 1) 도내 장애인.....22
 - 2) 조사대상 장애인.....24

3. 자료분석	
1) 정보격차인지 및 정보취득방법.....	28
2)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1) 유선전화.....	35
(2) 이동전화.....	37
(3) 공중전화.....	42
(4) 기타.....	44
3) 컴퓨터 보유실태와 이용현황	
(1) 컴퓨터 보유실태.....	45
(2) 컴퓨터 이용현황.....	49
(3) 컴퓨터 비이용 이유.....	52
4) 장애인과 인터넷.....	53
5) 정보화 교육.....	64
6)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68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70
2. 결론.....	73
 참고문헌.....	75
 <부록> 질문지.....	79

표 및 그림 목차

1. 표목차

<표 1-1> 2000년 제주도·시의 정보·복지 관련 평가내역.....	5
<표 2-1> 신복지통신요금제도.....	14
<표 3-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계획.....	18
<표 3-2> 조사항목 요약.....	21
<표 3-3> 장애인 등록현황.....	22
<표 3-4> 성별 장애인 등록현황.....	23
<표 3-5>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24
<표 3-6> 연령.....	25
<표 3-7> 학력.....	26
<표 3-8> 직업분포.....	27
<표 3-9> 가구 당 총수입.....	28
<표 3-10> 장애유형과 정보습득방법.....	30
<표 3-11> 정보통신기기 사용시 불편사항.....	31
<표 3-12>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희망사항.....	32
<표 3-13> 정보격차 인지.....	33
<표 3-14> 정책방향.....	35
<표 3-15> 제주도 전화보급률.....	36
<표 3-16> 조사대상자의 한달 평균 전화요금.....	36
<표 3-17> 통신요금 감면현황.....	37
<표 3-18> 연도별 이동전화 보유률-전국.....	38
<표 3-19> 지역별 이동전화 가입자수.....	38

<표 3-20> 이동전화 사용여부와 가입희망 정도.....	39
<표 3-21> 조사대상자의 이동전화 가입률(장애유형별).....	39
<표 3-22> 이동전화 한달 이용료.....	40
<표 3-23> 복지정보통신 이용요금 인지정도와 이동전화 가입률.....	41
<표 3-24> 공중전화 이용시 불편사항.....	44
<표 3-25>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44
<표 3-26>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추이.....	45
<표 3-27> 장애유형별 컴퓨터 보유현황-전국.....	46
<표 3-28> 장애유형별 컴퓨터 필요성.....	47
<표 3-29> 컴퓨터 보급률과 보유기종.....	47
<표 3-30> 컴퓨터 구매의향 조사.....	49
<표 3-31> 학력과 컴퓨터 이용률.....	50
<표 3-32> 컴퓨터 이용동기.....	51
<표 3-33> 현재의 컴퓨터 이용목적.....	52
<표 3-34> 컴퓨터 비이용 이유.....	53
<표 3-35> 연도별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53
<표 3-36>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수.....	54
<표 3-37>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	55
<표 3-38> 인터넷 이용(성별).....	57
<표 3-39> 인터넷 이용(장애유형별).....	57
<표 3-40> 인터넷 이용(학력별).....	58
<표 3-41> 인터넷 이용(연령별).....	58
<표 3-42> 인터넷 이용 용도.....	60
<표 3-43>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용도.....	60
<표 3-44> 인터넷 비이용 이유 I.....	61
<표 3-45> 인터넷 비이용 이유 II.....	62

<표 3-46>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네 가지 유형.....	62
<표 3-47> 컴퓨터 교육 이수 여부.....	64
<표 3-48> 컴퓨터 교육 이수 기관.....	66
<표 3-49>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68

2. 그림목차

<그림 1> 복지정보통신의 개념 구성도.....	12
<그림 2> 복지정보통신의 대상.....	13
<그림 3> 인터넷 사용기간.....	59
<그림 4> 컴퓨터 교육 이수 여부.....	65



ABSTRACT

A Study on the Environment Assis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the disabled in Jeju

Nam-Jin Ki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 of digital divide is one of the worldly issue in the recent reality of the global network of information. Especially classes of the disabled and the old have suffered the double handicap. No answer to that will make them more and more isolated from the society. There must be various methodical access to solve the problem of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dimension. The assis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AIC) has been investigated as a method to solve both the welfar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Jeju-do shows more developed policie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welfare than that of other local self-government area. It is analogized from this fact that disabled person in Jeju-do have been much more experienced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han those in other local area. This thesis take aim at those phenomena on the dimension of the welfare.

The research for the 138 disabled in Jeju-do has been done according to the followed five dimension: 1) cognition of digital divide, 2) method to take information, 3) retention situ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achinery and tools, 4) degree of using and having computer, 5) actual condition of using communication service, et cetera.

The best characteristic are the affirmative belief and the high desire to informatization. They believe that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ill be decreased in the future. And their high desire to informatization make it possible to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cultural capital.

But there exist still the problems which Jeju-do have in the universal service or the AIC. Providing the universal service and AIC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solution of the universal access and the universal design, it cannot be thought that the environment of the disabled in Jeju-do is better than other area.

In the case of the universal service, Jeju-do government has steadily carried out such various projects as the informatization village and local information center, etc. and through those project, the disabled in remote areas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computer and internet and became aware of its necessity. But the disabled had felt burden because of the insufficient enlargement of social tariff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ools.

Recently computer education has been practiced for informatization of welfare by assistive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many people have received informational education. But the disabled are still kept at a distance

because of the minority-provider-oriented education.

To be brief, it cannot be said that the environment of AIC for the disabled in Jeju-do is better than other area. If the local self-government does not take an active hand, the rate of this inequality will be deepened and the whole society would be divided.

This thesis has many limits, and also a little wish to be a basic material for promoting prosperity of Jeju area.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산업현장의 후끈한 열기가 그 사회의 생산력을 말해주던 시대는 이제 그 의미를 퇴색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공장의 굴뚝이 말해주는 것이라곤 소위 선진국이란 곳에서 밀려난 제조업이 선진국이 아닌 제3의 나라에서 환경 오염, 혹독한 근로조건과 싸우면서 그 어려움을 지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모습들은 이른바 정보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렵지 않게 보게된다.¹⁾ 일반적으로 기술집약적 혹은 고임금 노동은 선진국 국민경제에, 단순육체노동과 저임금 노동은 저개발 국민 경제에 집중되는 경향(김진영, 1999: 90)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식산업 중심의 선진국과 육체노동 중심의 후진국(혹은 제3세계)간 세계 경제의 재편성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탈냉전의 정세 하에서 세계화의 급진전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Bell을 비롯한 수많은 정보론자들이 주시했던 후기 산

1) '정보화', '정보화 사회'와 '정보사회'의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정보화'(informatization)란 정보의 생산 및 유통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배규한·임창규, 1998: 509)을 뜻한다.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에서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개념은 여러 다른 사회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단지 정보기술혁신으로부터 연유하는 사회변동을 사회구성체 전체(totality) 수준에서 추상화하여 특성화한 이념형적 개념이다. 반면 '정보화 사회'(informatization society), '고도정보사회'(advanced information society) 개념은 정보사회의 출현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그러한 정보화되어 가는 과정과 각 시기별 또는 국가별 정보화 정도를 상이하게 이해하려는 개념이다(서이중, 1998: 26).

본 글에서는 정보화의 개념을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속론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각 개념에 대한 자세한 구분은 서이중(1998: 22-27), 정보사회학회 편(1999: 21-35),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2000: 509-528) 등을 참고할 것.

업사회의 전망들이 정보화 사회의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재구조화를 실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stells, 1989; 김종철, 1997: 1).

재구조화 된-지역에 따라서는 재구조화가 진행중인-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기술결정론적인 긍정적 견해들은 재택근무와 원거리학습, 원격의료 등의 실현을 통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전망하는가 하면 정보를 가진자(the haves)와 못가진자(the have-nots)간의 갈등구조(Shiller, 1990), 원형감옥(Poster, 1990)을 통한 전자감시사회(Lyon, 1994)의 강화 등 변화된 사회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이론들도 있다. 많은 이견(異見)들의 존재를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논의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노동가치중심의 사회에서 지식가치중심 사회로의 공통된 변화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물질적 자원의 분배에서 생겨났던 불평등의 문제가 정보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많은 상황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²⁾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정보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등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를 다룬 이전의 많은 연구보고서 혹은 논문들(이민호, 1992; 정재균, 1994; 한국전산원, 1995, 1997; 김종철, 19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정보통신부, 1998; 조주은, 1998; 나운환, 1999; 변용찬, 2001; 서이중, 2001)은 보편적 서비스를 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적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계획이었던 만큼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학문적으로도 배제되는 현상을 보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뿐

2) 정보불평등은 각종 정보 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사회에서 중심적인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그리고 점유 수준에서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말한다(박형준, 1997; 김규원, 1999: 119).

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매개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에의 접근과 사용의 한계는 곧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에게도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못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에 근접하는 보장장치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잔여적 개념으로부터 제도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³⁾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통신의 복지화가 제도적 개념으로 성립될 때 비로소 보편적 서비스가 추구하는 이념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이론적 부문과 경험적 조사연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적으로 정보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보편적 서비스,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경험적 조사연구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혹은 복지정보통신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연구목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실태 파악 자료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정보통신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를 포함해 제주도,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곳의 기초자

3)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사회 제도들이 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제도들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욕구들을 일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과 상부상조의 가치에 기초하여 개인의 능력과 자아를 계발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또한 전문적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김기태 외, 2000: 8-9).

치단체는 모두 정보화 부문에 있어 상당할 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표 1-1>).

제주도는 장애인수에 비해 제주장애인복지관·서귀포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은데다 장애인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부모교육 등의 시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애인 복지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곳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⁴⁾ 또한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 평가’결과 정보화촉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제민일보, 2001. 1. 13.)되었으며 특히 제주시는 지난 ‘99년 9월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전국 2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에서 경기도 군포·과천시, 전남 광양시 등에 이어 종합순위 6위로 정보화 수준이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⁵⁾ 이에 제주시는 현재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흡수통합한 정보화 기획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발족해 정보화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⁶⁾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1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정보화 부문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⁷⁾ 같은 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81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주시가 1위로 선정되었다(제민일보, 2000. 12. 30.).

4)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장애인 예산확보·의무고용준수·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제민일보, 2000. 10. 23).

5) 제주시는 특히 정보화와 관련한 조례제정 및 계획수립 등 정보화지원기반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투자부문에서도 3위에 올라 제주시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제민일보, 2000. 2. 4).

6) 정보화 기획단은 ①정보화 기획팀 ②정보화 개발운영팀 ③정보화 교육지원팀 ④정보통신운영팀 등 전문 이력을 갖춘 4개 팀으로 구성된다(한라일보, 2000. 1. 18).

7) 제주시는 정보화, 환경, 참여, 자족, 녹색교통, 문화 등 6개 부문에 응모했다(제민일보, 2000. 12. 28).

<표 1-1> 2000년 제주도·시의 정보·복지 관련 평가 내역

기관	수 상 내 역	비고
제주도	2000년도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정보화촉진부문 우수기관
제주도	장애인 복지시책	종합순위 1위
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	종합순위 6위
제주시	‘제1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정보화부문 전국 최우수
제주시	‘장애인 복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

자료: 제민일보(2000.2.4., 12.28., 12.30., 2001.1.13.), 한라일보(2001.2.6.) 보도내용 정리

제주도는 산업·행정·문화·인프라 등 제반분야에서 정보화 체제를 갖추는 차원에서 ‘정보화의 섬’ 구축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라는 명성 외에 최근에는 정보화가 가장 앞선 도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또 다른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⁸⁾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장애인은 타 시도의 장애인들보다 정보화에 앞서 있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장애인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복지정보통신의 혜택을 더욱 많이 누리고 있음이 유추 가능하다. 경험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상 경력에 맞는 정보화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만약 현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면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물론 제주도의 정보화와 복지의 문제를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시의 경우 ‘장애인 복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데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고용촉진,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등 정보화의 외적부문에서

8) ‘정보화의 섬’ 구축 전략은 2001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국비 1,500억 원과 도비 1,000억 원, 민간 4,500억 원 등 7,0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이버 전자산업(e-Business), 사이버 전자공동체(e-Community), 사이버 전자정부(e-Government), 사이버 전자인프라(e-Infrastructure) 등 4개 분야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 언제 어디서나 주민·기업·관광객 등에게 살아있는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제민일보, 2000. 8. 25.).

모범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펴왔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제주시의 수상 경험을 떠나 장애인들이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복지정보통신)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보편적 서비스

1) 개념

온라인(on-line)화 그리고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사회보다는 불평등의 정도가 완화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는 한 달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그리고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그 골을 깊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삶의 기회'의 증대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 정보이용의 능력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보 접근이 기회와 정보이용의 능력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사회와는 성격과 정도를 달리하는 새로운 불평등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조류인 정보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가의 최종적 정책목표인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표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⁹⁾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서비스의 복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높다. 정보서비스의 복지적 성격규명이란 목적을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개념이 주로 사용된다.

즉 보편적 서비스란 원하는 모든 곳까지 공중전화망을 연결해 주고, 기본음성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구간·이용량 등에 따른 가격차별을 배제하되, 특히

9) 복지국가의 개념속에는 이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즉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내통화료를 값싸게 유지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화기 및 전화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7; 한국전산원, 1997: 22)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은 원래 AT&T(미국전신전화회사)의 선전문구로써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것은 AT&T가 제시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 One Policy, One System and Universal Service”라는 모토하에서 “하나의 통신계가 일정한 방침하에 전국적으로 널리 서비스를”이라는 사고였지만 그것은 독립계 전화회사와 전신회사 웨스턴유니온사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향 속에서 AT&T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음이 지적되고 있다(이민호, 1992: 72; 한국전산원, 1995: 2-5; 1997: 22; 서이종, 1998: 272-273). 이 슬로건중의 세 가지 요소는 논리적으로 삼위일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은 수단적 가치이고 ‘보편적 서비스’가 목적적 가치임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할 것이다. 이 시기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거주지의 지리적 차이와 무관하게 특정한 국가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질적 수준의 최소한의 서비스 체계로 정의되지만 기본전화서비스의 보편성(universality)은 지리적으로 가용하고(available),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affordable) 있으며, 신체적으로 접근할 수(accessible) 있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확대라기보다는 접근기회의 확대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2)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다양한 단말기기와 디지털 정보통신망 등 최근의 환경과 기술변화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확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 정의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인데 기존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는 전화서비스, 즉 기본적인 음성 통신 서비스만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에는 단순한 음성 서비스를 뛰어넘어 고속의 데이터 및 영상 서비스 등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가 포괄되어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의는 (1)이용능력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수혜자를 확장하고, (2)전화 이외의 최신 정보통신 서비스를 대상에 추가하며, (3)통신시장이 경쟁상황으로 변함으로써 이에 맞도록 정책을 재조정한다는 세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한다(한국전산원, 1997: 23).

보편적 서비스의 확장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구체화시킨 나라 역시 미국이다. 국가정보기반 구축은 미국 정보화의 기본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 Act 1934)을 1996년에 전면 개정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¹⁰⁾ 1996년 2월 8일자로 발효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 (c)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연방-주 합동위원회가 전기통신, 정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정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진화수준”으로 정의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을 (1)교육, 공공의료, 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 (2)시장기능에 의해

10) 규제기관이나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한다.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가 갖는 기능과 특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립적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들은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서비스나 기능들이 전통적인 통신사업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정용 고객의 상당수에 의해 가입되어왔던 서비스, (3)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공중통신망에 채용되어왔던 서비스, (4)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명시하였다. 동 통신법 제254조 (b)항에서는 연방-주 합동위원회 및 FCC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포함한다.¹¹⁾

2. 복지정보통신

1) 개념

정보화는 그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에 새로운 정보격차를 덧붙일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자원 동원체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통로 등의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극복케 해줄 물리적·사회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이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화와 복지화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되어가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두 방향에서의 접근과 그 중첩 영역을 ‘복지정보통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²⁾ 즉, ‘복지정보통신’이란, 한편으로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복지적 요소의 내장’, 다른 한편

11) 미국의 정보격차 해결 방안, 보편적 서비스, 통신법의 재·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www.universalservice.org, www.digitaldivide.gov, www.ntia.doc.gov, www.benton.org 를 참고할 것.

12)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 확장은 ‘정보통신의 복지화’로서의 의미를 갖게되는데 초점을 맞춰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8)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정보통신을 동일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통신의 복지화’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임에 반해 복지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복지의 정보화’를 동시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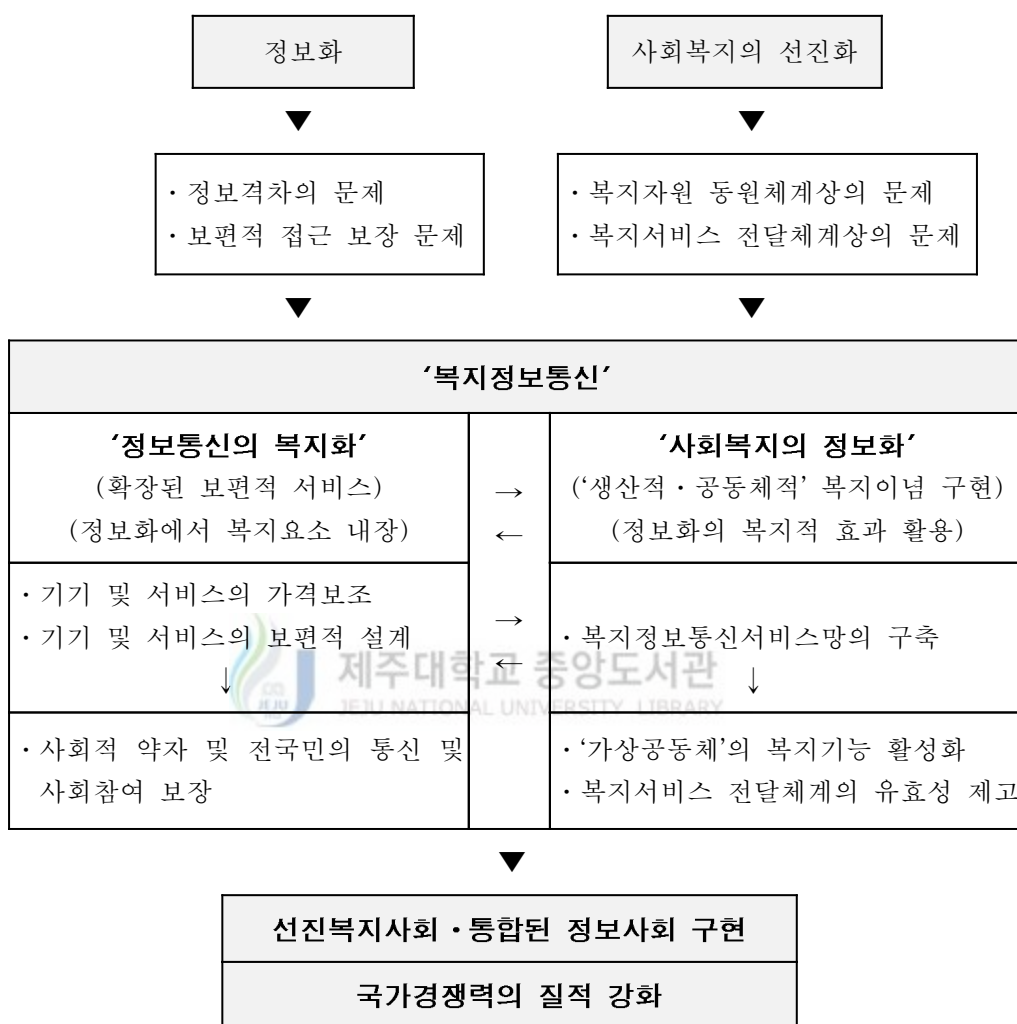
으로는 ‘정보화의 복지적 효과 활용’을 의미하며, 나아가 ‘정보화와 복지화의 발전적 결합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이념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와 정책의제에 덧붙여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비롯한 새로운 문제영역이 추가된다.¹³⁾ 다른 한편, ‘사회복지의 정보화’란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통로를 보장하고, 민간의 실제적·가상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활력을 이끌어내는 수단적 도구로서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3-10; 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4-10). 부연하자면 복지정보통신이란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이는 다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5-10)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복지정보통신은 특정 이용자 즉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복지정보통신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13) 보편적 설계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사용자에게 맞도록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최종 사용자가 건강, 연령 등 신체적, 정신적 능력상의 차이나 결합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고 다양한 단말기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문제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22; 조주은, 1998: 2; 나운환, 1999: 48).

<그림 1> 복지정보통신의 개념 구성도



출처: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2) 대상과 요금제도

복지정보통신을 정의함에 있어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지향이 겹치는 영역을 통해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설계’와 ‘복지 가상공동체’의 구성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장애인이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준(準)장애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조차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전국민 누구나 어떤 조건하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보통신’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그림 2>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정보통신의 대상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복지정보통신의 대상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7)

장애인, 정보약자, 노인 등의 정보빈곤층을 포함함은 물론이며 정상인들 또한 복지정보통신의 대상에 속한다. 즉 정보빈곤층에게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복지적 시혜가 이루어지는 것-‘정보통신의 복지화’-이며 정상인들에게는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물론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보화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정보화’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은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지닌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 모두에게도 매우 유용하며 필요하다.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있어 정보통신기기(기술)의 이용에 있어 가

장 큰 부담은 그 구입과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장애인 은 신체적 불편함과 함께 경제적 고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만큼 이에 수반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정보통신요금제를 도입했다.

<표 2-1> 신복지통신요금제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노인 · 18세 미만의 아동(단, 중고등학생일 경우 20세 까지 인정) ·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50세 이상의 부녀자 중 하나의 경우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보건복지 부에서 인정하는 거택보호대상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만 3천 가구(33만 8천명 정도)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에 한해 전화기 무료제공 · 신규전화설비비(지역에 따라 12만 2천원~24만 2천원)면제 · 장치비(신규가입시 8천원, 이전시 1만 4천원)면제 · 기본료(월 1천 5백원~2천 5백원)면제 · 통화료 150도수(4천 5백원)면제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신

출처: 정재균(1994)

복지통신요금제(social tariffs)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약자로 공인되는 대상 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할인된 요금제를 말한다. 1993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맞춘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하나로 복지통신요금제 도입의 이면에 깔려있는 대전제는 저소득자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의 고객 들은 기본적인 공익서비스에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기본서비스는

이들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상시의 긴급연락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들에게 지불가능한 요금으로 비록 그 요금이 서비스 비용에 못 미치더라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재균, 1994: 19-22). 지난 93년 5월까지의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할인요금제’만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6월 1일부터는 ‘신복지통신요금제’(<표 2-1>)의 시행으로 보편적 서비스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제3장 제주지역 장애인의 정보화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이론적 고찰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 장애인들이다. 우선적으로 장애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 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980년 UN산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장애분류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다(WHO, 1980). 이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 즉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손상은 ‘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 개정 전까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9년 2월 8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의(제2조 1항)를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재정의하고 있다(<표 3-1>).¹⁴⁾ 이상의 법률 개정을 통해 윤동성(2000: 203)은 장애인의 정의에 내부장애인과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포함됨으로써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고통받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정의되어 법·제도적 시혜를 받게 될 것이고, 재활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관련 복지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4) 법률 제5931호.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지·보조기기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표 3-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또는 기준)	확대예상범주 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외부기형 피부질환
		뇌병변장애	중추신경 손상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자	호흡기장애, 만성간질환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간질 등 경련장애 만성통증, 암 기타 신체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기타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기타 정신발달장애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 연구방법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기기 보유현황 및 정보화 인지정도에 대한 의식조사

를 수행하였다.¹⁵⁾

조사 대상자는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11,764명중 138명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1년 6월초부터 9월초까지로 대략 3개월의 조사기간이 소요됐다. 처음에는 제주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의 등록 장애인 수를 기준삼아 지역별로 질문지를 할당하고 다시 장애유형별로 표본수를 정하였다.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시각·정신·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각, 정인지체 등의 장애인들의 경우 질문지법을 통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장애유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즉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든 설문 내용을 면접을 통해 일일이 읽어줘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을 찾아오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정해진 인원이며, 동시에 연령이 많은 계층이라는 것이다. 정인지체의 경우는 짧은 시간의 집중도 힘들며, 일상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설문 대상으로 부적합한 점이 많았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조사대상자를 면접하고자 해도 개인정보유출 금지를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표본수는 물론, 지역별·장애유형별·학력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세밀한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최종적으로는 북제주군 20명, 남제주군, 20명, 서귀포시 26명, 제주시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의 수가 미미하고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을 감안하여 지역별 장애인들의 특성은 이번 조사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 유형인 지체장애인

15)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 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95년으로, 이후 간헐적으로 장애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부가 전국 규모의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0년부터이다. 1980년 보건사회부가 한국보건개발원에 위탁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1985년에도 조사를 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0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7: 5).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지역을 서울, 광역시, 기타도시, 군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전산원(2000b)의 실태조사에서 제주도는 제외되었다.

의 정보화 실태를 고찰한다는 데 의미를 뒤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설문은 ‘탐라장애인 복지회관’, ‘제주도 종합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 춘강’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가 진행됐으며 수집된 설문지 138부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국내외 문헌, 외국의 법률·현황, 각 웹 사이트(web site) 등을 토대로 하였고, 통계자료는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을 대단위로 포함하는 연구결과는 물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주지역 장애인의 정보화 변화 추이를 비교함이 가장 적당하다 하겠으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 항목의 결과가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여타의 장애인 정보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둘 간의 비교도 동시에 이루어졌다.¹⁶⁾

3) 조사항목

설문지는 크게 다섯 가지의 대항목과 열 다섯 가지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항목의 내용으로는 1)정보격차인지 및 정보취득방법, 2)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3)컴퓨터 이용 및 보유현황, 4)통신서비스 이용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소항목은 대항목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6) 표본의 수로 인해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다. 단순 무작위추출의 경우 모집단의 크기가 제주지역 장애인의 수를 기준으로 ‘10,000’이면 95%를 신뢰도 수준으로 하고 허용오차를 5%로 할 때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313’ 수준이다(정대연, 1996: 51) 그런만큼 자료분석에서 지칭하는 제주지역 장애인이란 표현은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한정시켜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3-2>과 같다.

<표 3-2> 조사항목 요약

대항목	소항목	세 부 내 용
정보격차인지 및 정보취득방법	정보취득방법	신문, TV 등의 방송, 학교,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격차인지정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 정도
	정보격차해결방안	정보교육강화, 정보통신기기개발, 기기의 가격인하 등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개인적 소유	유선전화, 이동전화, TV, 팩스, 음성손목시계의 소유여부
	공중전화	공중전화 이용시 불편사항
	정보통신기기 이용시 불편사항	사용복잡, 비장애인 위주의 설계, 비싼가격 등
	이용요금	유선전화, 이동전화의 한달 이용 요금
컴퓨터이용 및 보유현황	컴퓨터보유여부	컴퓨터 보유 여부 및 기종과약 컴퓨터 이용기간 및 사용동기 컴퓨터 구입의사가 있는가? 컴퓨터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장소 컴퓨터 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컴퓨터이용여부	
	컴퓨터구입의사	
	컴퓨터관련교육 수강여부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PC통신	PC통신을 이용하는가? 주된 용도는?
	Internet	인터넷 이용정도, 이용기간, 주된 용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
	PC방 이용실태	PC방 이용경험, PC방 이용시 불편사항, PC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배경변인	인구 및 사회경제적변인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2. 일반적 현황

1) 도내 장애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3.09%로서 1995년의 2.35%에 비해서는 0.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표 3-3> 장애인 등록 현황(2000. 12. 30. 현재)

(단위: 명,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계	5,153	1,841	2,808	1,962	11,764(100.0)
지체	3,126	1,102	1,676	1,177	7,081(60.2)
뇌병변	167	45	72	59	343(2.9)
시각	588	226	343	210	1,367(11.6)
청각·언어	456	117	267	153	993(8.5)
정신지체	540	249	341	265	1,395(11.9)
발달(자폐증)	7	3	1	2	13(0.1)
정신장애	75	44	46	47	212(1.8)
신장장애	156	46	45	38	285(2.4)
심장장애	38	9	17	11	75(0.6)

자료: 제주도(2001b)

제주도의 경우(제주도, 2000) 총인구 539,493명중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2.2%에 해당하는 11,764명이며, 그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표 3-3>).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북제주군으로 23.9%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시 15.6%, 남제주

군 16.7%).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0.2%, 정신지체 11.9%, 시각장애 11.6%로 전체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위의 자료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미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출현률¹⁷⁾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제주도의 장애인수는 더욱 많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표 3-4> 성별 장애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증)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계	7,081	343	1,367	993	1,395	13	212	285	75	11,764
남	4,710	195	813	575	798	11	129	164	45	7,440
여	2,371	148	554	418	597	2	83	121	30	4,324

자료: 제주도(2001b)

성별로는 남자 7,440명, 여자 4,324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다.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을 보면 남자와 여자간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4,710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813명), 정신지체(798명), 청각·언어장애(575명)의 순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지체장애인(2,371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은 남자와 같으나 정신지체장애(597명)가 시각장애(554명)

17) 전국적 수준에서 지체장애의 출현률은 1.35%, 뇌병변장애 0.52%, 시각장애 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신규로 추가된 발달장애인(자폐증)의 출현률은 0.05%(인구 만 명당 5명), 정신장애는 0.17%(인구 만명당 17명), 신장장애는 0.06%(인구 만명당 6명), 그리고 심장장애는 0.13%(인구 만명당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29).

18)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기피했던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나라 장애인중 등록 장애인은 62.6%으로 추정되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43), 도내 실제 장애인은 전체 주민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갈수록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일보, 2001. 5. 3).

보다 더욱 많이 나타났다(<표 3-4>).

2) 조사대상 장애인

성별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34명을 보면 남자(90)가 여자(44)보다 많이 표집되었다. 이는 남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66.5%)과 거의 흡사한 비율(67.2%)의 표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등록 현황과 비교했을 때 지체장애인의 표집은 과다, 시각과 정신지체는 과소 조사되었다.

연령대별(<표 3-5>)로는 30대가 47.7%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 19.5%로 경제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할 연령대며,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연령대가 설문에 많이 응한 관계로 성비와 연령대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된다.



<표 3-5> 연령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빈도(명)	1	25	61	21	14	6	128
퍼센트	0.8	19.5	47.7	16.4	10.9	4.7	100.0

<표 3-6>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빈도	73	32	105
		성별	81.1	74.4	78.9
		전체	54.9	24.1	78.9
	뇌병변 장애	빈도	6	-	6
		성별	6.7	-	4.5
		전체	4.5	-	4.5
	시각 장애	빈도	1	-	1
		성별	1.1	-	0.8
		전체	0.8	-	0.8
	청각 장애	빈도	8	6	14
		성별	8.9	14.0	10.5
		전체	6.0	4.5	10.5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	빈도	-	1	1
		성별	-	2.3	0.8
		전체	-	0.8	0.8
	정신 장애	빈도	1	1	2
		성별	1.1	2.3	1.5
		전체	0.8	0.8	1.5
	신장 장애	빈도	1	1	2
		성별	1.1	2.3	1.5
		전체	0.8	0.8	1.5
전 체		빈도	90	43	133
		성별	100.0	100.0	100.0
		전체	67.7	32.3	100.0

* :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각 유형은 빈도, 성별, 전체의 값이 동일

<표 3-7> 학력

구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계
빈도(명)	14	24	67	13	13	1	132
퍼센트	10.6	18.2	50.8	9.8	9.8	0.8	100.0

장애인의 학력(<표 3-7>)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가 10.6%, 중학교 18.2%, 고등학교 50.8% 전문대졸이상 20.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26.6%, 중학교 15.7%,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 19.7%(통계청, 2000)와 비교한다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한 미취학 1.7%, 무학 21.5%, 초등학교 30.1%, 중학교 14.2%, 고등학교 24.1%, 전문대 이상 8.5%의 교육정도(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비교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곧바로 사회적 적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중 회사원(23), 개인사업자(11), 기타(21) 등을 제외하면 50% 이상의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수준에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8%(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제주도 비장애인의 실업률 2.5%(통계청, 2001)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수월치 못함을 보여준다.¹⁹⁾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의 취업률(64.3%)이 높게 나타났고 지체장애인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8>).

19) 국회교육위의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우영 의원에 의하면 “제주도 장애인의 취업률은 1998년과 1999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에는 52.2%에서 2001년도에는 20.8%로 급락해 장애인 취업률 전국 평균치인 30.6%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제주일보, 2001. 9. 25). 그러나 이러한 큰 폭의 수치상 변화는 2000년 장애인 범주 확대에서 오는 것이다.

<표 3-8> 직업분포

(단위: 명, %)

구 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직	학생	빈도	2	-	-	-	1	-	-	-	-	3	
		유형	2.0	-	-	-	100.0	-	-	-	-	2.3	
		전체	1.6	-	-	-	0.8	-	-	-	-	2.3	
	회사원	빈도	19	-	-	4	-	-	-	-	-	23	
		유형	18.8	-	-	28.6	-	-	-	-	-	17.8	
		전체	14.7	-	-	3.1	-	-	-	-	-	17.8	
	개인사업자	빈도	9	-	-	1	-	-	-	-	1	11	
		유형	8.9	-	-	7.1	-	-	-	-	50.0	8.5	
		전체	7.0	-	-	0.8	-	-	-	-	0.8	8.5	
	업	주부	빈도	14	-	-	3	-	-	-	-	1	18
			유형	13.9	-	-	21.4	-	-	-	-	50.0	14.0
			전체	10.9	-	-	2.3	-	-	-	-	0.8	14.0
무직		빈도	43	5	-	2	-	1	1	1	-	53	
		유형	42.6	83.3	-	14.3	-	100.0	100.0	50.0	-	41.1	
		전체	33.3	3.9	-	1.6	-	0.8	0.8	0.8	-	41.1	
기타	빈도	14	1	1	4	-	-	-	1	-	21		
	유형	13.9	16.7	100.0	28.6	-	-	-	50.0	-	16.3		
	전체	10.9	0.8	0.8	3.1	-	-	-	0.8	-	16.3		
전체	빈도	101	6	1	14	1	1	1	2	2	129		
	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3	4.7	0.8	10.9	0.8	0.8	0.8	1.6	1.6	100.0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은 곧바로 가구 당 총수입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당 총수입이 1백만원 미만의 경우가 63.8%다.²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2001년 2/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247만 6천원, 실질소득액이 195만 6천원²¹⁾인 것과 비교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매우 열악한 경제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전문적 기관이 없었다는 것도 장애인들의 취업률에 크게 영향을 줬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올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사무소 개소는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표 3-9> 가구 당 총수입

가구당 총수입	1백만원미만	1백만원이상 ~ 1백50만원미만	1백50만원이상 ~ 2백만원미만	2백만원이상 ~ 2백50만원미만	3백만원이상	계
빈도(명)	81	26	9	9	2	127
퍼센트	63.8	20.5	7.1	7.1	1.6	100.0

3. 자료 분석

1) 정보격차인지 및 정보취득방법

도내 장애인들은 주로 TV·라디오 등의 방송(39.1%)과 주변 사람(17.3%),

20)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7.2%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만원 미만이 25.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34-135).

21) 통계청 웹사이트 보도자료 www.nso.go.kr/report/data/ssdo0124.htm

신문(15.8%)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PC통신과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의 습득은 12.8%에 그쳤다(<표 3-10>).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각각 21.4%와 12.4%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취득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이 뉴 미디어가 아닌 일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함은 보편적 설계 및 보편적 접근에 있어 수월치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들조차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현대 사회의 기기들이 점점 소형화, 다기능화되는 추세는 그 사용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경향과 함께 극소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노인층과 장애인, 경제적 약자들은 최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하고, 조작하는데 적잖은 애로사항을 느끼게 한다. 즉 기술의 발달이 어떤 계층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애나 장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장벽을 제거하여 전국민의 전면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다(정보통신부, 1998: 22-23).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컴퓨터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보편적 설계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보화가 진전되는 속도만큼 장애인들은 더 큰 사회적 불리(不利)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사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보편적 설계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0> 장애유형과 정보습득방법

(단위: 명, %)

구 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정 보 취 득 방 법	신문	빈도	16	1	-	2	1	-	-	1	-	21
		유형	15.2	16.7	-	14.3	100.0	-	-	50.0	-	15.8
		전체	12.0	0.8	-	1.5	0.8	-	-	0.8	-	15.8
	방송	빈도	44	4	-	3	-	-	1	-	-	52
		유형	41.9	66.7	-	21.4	-	-	100.0	-	-	39.1
		전체	33.1	3.0	-	2.3	-	-	0.8	-	-	39.1
	학교 교육	빈도	-	-	1	-	-	-	-	1	-	2
		유형	-	-	100.0	-	-	-	-	50.0	-	1.5
		전체	-	-	0.8	-	-	-	-	0.8	-	1.5
	주변 사람 들	빈도	21	-	-	2	-	-	-	-	-	23
		유형	20.0	-	-	14.3	-	-	-	-	-	17.3
		전체	15.8	-	-	1.5	-	-	-	-	-	17.3
	책이 나 잡지	빈도	2	-	-	1	-	1	-	-	-	4
		유형	1.9	-	-	7.1	-	100.0	-	-	-	3.0
		전체	1.5	-	-	0.8	-	0.8	-	-	-	3.0
	컴퓨터	빈도	13	1	-	3	-	-	-	-	-	17
		유형	12.4	16.7	-	21.4	-	-	-	-	-	12.8
		전체	9.8	0.8	-	2.3	-	-	-	-	-	12.8
	복지 회관	빈도	9	-	-	3	-	-	-	-	2	14
		유형	8.6	-	-	21.4	-	-	-	-	100.0	10.5
		전체	6.8	-	-	2.3	-	-	-	-	1.5	10.5
전 체	빈도	105	6	1	14	1	1	1	2	2	133	
	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9	4.5	0.8	10.5	0.8	0.8	0.8	1.5	1.5	100.0	

일반 정보통신기기 혹은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사용방법이 복잡하다’(35.7%)는 것과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33.3%)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위의 문제는 분명해진다(<표 3-11>).

<표 3-11> 정보통신기기 사용시 불편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사용방법이 복잡	46	35.7	22	18.2
비장애인 위주의 설계	23	17.8	17	14.0
판매처가 한정돼 있음	5	3.9	5	4.1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	43	33.3	43	35.5
A/S 받는데 힘들다	4	3.1	13	10.7
최신제품에 대한 정보습득이 곤란	8	6.2	21	17.4
합계	129	100.0	121	100.0

우리 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이나 보급,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굳이 장애인만을 위한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아니더라도 간단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보화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장애인들은 정보통신기기의 ‘제품의 가격을 낮춰줄 것’(47.4%)과

‘사용방법을 간편하게 해줬으면’(27.7%) 하는 바램이 제일 컸다(<표 3-12>).

<표 3-12>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희망사항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사용방법의 간편화	38	27.7
제품의 다기능화	14	10.2
제품의 가격인하	65	47.4
A/S 센터 증설	6	4.4
신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5	3.6
제품 모델의 다양화	9	6.6
합계	137	100.0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표 3-13>)가 조금 날 뿐이며 미래에도 그 정도는 현재와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래 사회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보격차에 대해 ‘조금 차이가 난다’(40.6%), ‘차이가 심하다’(27.5%), ‘차이가 없다’(20.3%)의 순서에서 미래에는 정보격차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44.4%), ‘차이가 없다’(26.8%), ‘차이가 심하다’(13.8%)의 순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성별, 연령에 따른 배경변인별로 살펴봤을 때도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난다.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비율의 증가와 차이가 심해질 것이란 응답자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은 정보격차의 정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예상 가능하다. 장애인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복지의 발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 나운환(1999: 64-65)은 정보화가 사회복지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응

용서비스(원격진료, 상담, 교육, 쇼핑, banking, 재택근무)는 핸디캡을 가진 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준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을 상호연계(networking)시켜 줌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체계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정보화가 가진 특성 중 전환성을 높임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장애인들의 정보기기의 희망사항을 통해 정보의 복지화가 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복지화는 미래사회에서 복지의 정보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복지정보통신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13> 정보격차 인지

구 분	현 재		미 래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차이가 없다	28	20.3	37	26.8
조금 차이남	56	40.6	61	44.2
차이가 심함	38	27.5	19	13.8
모름	16	11.6	21	15.2
계	138	100.0	138	100.0

응답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표 3-14>)에 대해 복지회관 등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해줄 것’(23.2%)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 즉 장애인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정보통신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통신법의 225조, 노동력투자법의 508조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계서비스(relay service) 등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영국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21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²²⁾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20) 첫째, 일정세력(대기업, 선진국가 등)의 정보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둘째, 의료재활문제,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 직업기회의 확보문제, 소득보장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 등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각종 장애유형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22.5%), ‘다양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20.3%),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15.2%)의 순이다. 즉 장애인들은 보편적 접근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희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장애인 관련 단체의 정보화가 미흡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부실함을 지적한다고 봐진다.

22)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1997년 3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접근권이 명시되어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19). 외국의 접근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산원(2000c: 48-84, 2000d: 22-37)을 참고할 것.

<표 3-14> 정책방향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31	22.5
다양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	28	20.3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가격인하	21	15.2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조성 (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정보화)	32	23.2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15	10.9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9	6.5
기타	2	1.4
합계	138	100.0

2)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1) 유선전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정보통신기기인 유선전화는 이제 거의 1가구 1전화를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0년 현재 전화 보급율이 41.5%로 모든 가구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으며(<표 3-15>) 조사대상자들 또한 대부분이(93.5%) 유선전화를 설치,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달 전화 요금은 1만원 이상에서 2만원 미만 사이가 46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36명(27.7%)이 다음이다(<표 3-16>).

<표 3-15> 제주도 전화보급률

(단위: 회선, 가입자)

구 분	일 반 가 입 전 화				공중전화
	계	업무용	주택용	보급율 (인구100명당)	
2000년	225,736	67,225	158,511	41.5	7,710
제주시	124,863	43,462	81,401	44.7	4,641
서귀포시	35,958	10,826	25,132	41.9	1,420
북제주군	36,602	7,144	29,458	36.5	914
남제주군	28,313	5,793	22,520	36.3	935

자료: 제주도(2001c); <http://www.cheju.go.kr>에서 인용

주: 전화보급율-주민등록인구와의 비율

<표 3-16> 조사대상자의 한달 평균 전화요금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1만원 미만	21	16.2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46	35.4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36	27.7
	3만원 이상-4만원 미만	16	12.3
	4만원 이상-5만원 미만	6	4.6
	5만원 이상	5	3.8
	합 계	130	100.0
결 측	8		
합 계	138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전화보급률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50%를 감면시켜주고 있고, 전화번

호안내 서비스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감면제도(<표 3-17>)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표 3-17> 통신요금 감면 현황

구분	매체	내용	시행시기	97년 4월 1일 시행내용
장애인	일반전화	장애등급에 따라 20~40%감면	시내: '89년 시외: '95/5 (월2만 원내)	-등급에 관계없이 50%감면 (연간 100억 원 효과) -전화번호안내 면제 ('97/1)
	이동전화	가입비(7만원)면제	'96/2	-기본료의 30%감면 추진
	무선호출	월 기본 사용료 20%	'96/6	
	PC통신	이용료 50%	'93/4	
저소득층	전화기	-설비비 / 장치비 / 기본료 면제 -월150도수 무료 사용 -신규설치시 전화기 무료대여(1회)		-거택보호대상자 -생활조정대상자 -노약자/청소년 가장 포함
노인	PC통신	-하이텔 이용료 면제(원로방가입자에 한함)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하이텔/천리안 이용료 50%감면		
기타		-장애인 공중전화부스: 2,373대('96년 말) -시각장애이용 점자전화번호부 6,000부 발행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여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외(2001)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일반 유선 전화 못지 않게 이동전화의 이용정도가 보편화 되어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72)의 자료(<표 3-19>)에 의하면 2000년 현재 71.9%가 PCS를 포함한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장애인들 중에는 이동전화와 일반 유선전화의 중복 사용을 막고자 일반 유선전화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전화보급률의 하

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2) 이동전화

1984년 3월에 ‘카폰’형태로 우리 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동전화서비스는, 1996년 4월에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이동전화의 보급과 함께 1997년 10월 PCS 3개 사업자(한국통신, LG텔레콤, 한솔)가 신규 진입하여 경쟁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도를 기점으로 연 평균 103%의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1999년 8월에는 가입자수가 2천만을 돌파하였고 9월에는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추월하였다(한국전산원, 2000a: 249). 제주지역의 이동전화 가입자 역시 1998년 140,395명에서 2000년에는 196.8% 증가한 276,265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이 보여왔다(<표 3-18>).



<표 3-18> 지역별 이동전화 가입자수

(단위: 명)

지 역	1998년	2000년
서울/경기	7,345,691	13,151,522
부산/경남	2,064,527	4,154,008
대구/경북	1,440,986	2,751,941
광주/전남	901,994	1,722,642
전북	468,670	919,356
대전/충남/충북	1,236,732	2,314,302
강원	389,624	776,969
제주	140,395	276,265

자료: 한국전산원(2000a)

<표 3-19> 연도별 이동전화 보유률-전국

(단위: %)

구분	이동전화(PCS포함)		
	1998년	1999년	2000년
없다	68.9	54.7	28.1
있다	31.1	45.3	71.9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질문에 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35명중 95명인 70.4%는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명중 31명(77.5%)이 구입을 원했다(<표 3-20>).



<표 3-20> 이동전화사용여부와 구입희망정도

이동전화사용여부				이동전화구입희망정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사용함	95	70.4	유효	구입하겠음	31	77.5
	사용하지않음	40	29.6		구입하지않음	9	22.5
	합계	135	100		합계	40	100
결 측		3		결 측		98	
합 계		138		합 계		138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부담’(47.4%), ‘비싼 기기 가격’(28.9%), ‘필요가 없어서’(21.1%), ‘신체적 이유’(2.6%) 때문에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21> 조사대상자의 이동전화 가입률(장애유형별)

(단위: 명, %)

장애유형별 이동전화가입률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전체	
이동 전화 사용 여부	사용 함	빈도	80	-	-	10	1	-	-	1	-	92
	유형		76.9	-	-	71.4	100.0	-	-	50.0	-	69.7
사용 않함	빈도	24	6	1	4	-	1	1	1	2	40	
	유형		23.1	100.0	100.0	28.6	-	100.0	100.0	50.0	100.0	30.3
전 체		빈도	104	6	1	14	1	1	1	2	2	132
		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2만원 이상~4만원 미만의 서비스 이용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는데(<표 3-22>) 일반 유선전화사용료까지 포함한다면 1가구 1유선전화·1이동전화만을 가정하더라도 한달 평균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에 이르는 통신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초 기기를 구입하는 기기값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에게는 이용료 할인과 더불어 통신기기에 대한 할인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통신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정보통신은 단순한 의사소통매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이며, 사회참여의 통로이며, 일상의 경제생활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맥을 같이한다.

<표 3-22> 이동전화 한달 이용료

구 분	빈도(명)	퍼센트
2만원 미만	24	25.3
2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32	33.7
3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26	27.4
4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9	9.5
5만원이상	4	4.2
합 계	95	100.0
결 측	43	

장애인들이 이동전화를 구입하는데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그나마 주어지고 있는 장애인 혜택 사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²³⁾ 조사대상자의 30.1%가 이동전화와 관련된 법적인 혜택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사항의 인지 정도와 이동전화 가입률과의 관계는 아래의 교차표(<표 3-23>)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법적인 혜택을 알고 있는 장애인의 85.1%는 이미 이동전화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모르는 66.7%의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전화의 사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 즉 장애인의 이동전화의 구입과 이용에 따른 혜택사항의 범주를 넓힘과 동시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도 편리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갖춘 이동전화 기기의 개발도 시

23) 조주은(1998: 1)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와 관련해서 실제 시행되는 각종 할인·감면 제도의 상당 부분은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조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서 미흡한 면이 많은데,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전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그 대표적인 지적한다.

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23> 복지정보통신이용요금 인지정도와 이동전화 가입률

(단위: 명, %)

구 분			이동전화와 관련된 법적 혜택		전 체	
			안다	모른다		
이동전화 사용 여부	사용함	빈도	80	14	94	
		이동전화 사용 여부	85.1	14.9	100.0	
		이동전화와 관련된 법적 혜택	86.0	35.0	70.7	
		전체	60.2	10.5	70.7	
	사용 않함	빈도	13	26	39	
		이동전화 사용 여부	33.3	66.7	100.0	
		이동전화와 관련된 법적 혜택	14.0	65.0	29.3	
		전체	9.8	19.5	29.3	
전 체			빈도	93	40	133
			이동전화 사용 여부	69.9	30.1	100.0
			이동전화와 관련된 법적 혜택	100.0	100.0	100.0

조사대상자 중 특수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애인은 4명(2.9%)에 그쳤으며 특수전화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가 없어서’(86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싼 가격’(25명), ‘판매하는 곳을 몰라서’(8명) 순이었다. 또한 특수전화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36명(29.5%)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다각도(多角度)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주도내에서는 특수전화를 구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별히 판매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화기에 대한 홍보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전화기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 음성인식기능이 설정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통화하는 데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전화기의 보급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제품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판매처 및 A/S점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3) 공중전화

일반 유선전화의 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여전히 공중전화는 많은 부문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편적 접근의 차원에서 공중전화는 가정에 전화를 설치할 수 없는 이들과 이동전화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에겐 매우 중요한 통신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통계자료(제주도, 2000)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7,919대(옥내, 옥외 포함)의 공중전화의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공중전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중전화(주) KT Linkus에 의하면 장애인용 공중전화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전화번호부는 전무한 상태이며 공중전화 부스의 문턱을 없애고, 전화기의 높이를 낮춘 장애인용 공중전화 부스는 총 41실 밖에 되지 않는다.²⁴⁾ 지역별로는 제주시 27실, 서귀포시 10실, 북제주군 2실, 남제주군 2실로 전반적으로 장애인용 공중전화 부스가 부족함은 물론이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농촌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도·농간의 정보격차문제는 장애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나라

24) 한국공중전화의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행된 것이 없는 관계로 업무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산출한 것임.

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도·농간에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제주도, 2000a: 90). 젊은 세대와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의 정보화 진행 속도는 빠른 반면에 도시의 저소득층, 농촌지역의 농업인 등은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장애인들은 지역적·신체적 장애라는 이중의 장애를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또한 장애인용 공중전화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나 수신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으로써 가벼운 청각장애나 노인들의 청력을 보완할 수 있는 주화카드겸용 전화기는 제주시 304대, 서귀포시 96대, 북제주군 58대, 남제주군 31대 등 총 489대(옥외, 옥내 포함)가 설치돼 있다.

<표 3-24> 공중전화 이용시 불편사항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장애인용 공중전화 부족	61	46.2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화 부족	28	21.2
	점자 전화번호부가 없음	2	1.5
	공중전화 부스의 잘못된 설계	22	16.7
	기타	8	6.1
	없음	11	8.3
	합계	132	100.0
결 측		6	
합 계		138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공중전화의 문제점은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즉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가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함’(46.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조건에 맞는 공중전화 없음’(21.2%), ‘공중전화 부스의 잘못된 설계’(16.7%) 등의 순이다(<표 24>). 이미 우리 나라도 2000년부터 UN의 기준에 의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장애인의 출현률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공중전화도 노인, 장애인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 개발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²⁵⁾

(4) 기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불편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타의 정보통신기기로는 팩시밀리, 자막방송 TV, 음성손목시계 등이 있는데, 그 보유 정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3-25>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구 분	TV	자막방송 TV	FAX	음성손목시계
보유율(%)	95.6	8.2	11.2	-

3) 컴퓨터 보유 실태와 이용현황

(1) 컴퓨터 보유실태

우리 나라는 컴퓨터 보유율에 있어 94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커지는

25)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 시정명령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양상을 보이고 있다. 97~98년 한 해 동안 성장률이 부진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2000년 현재 66.0%의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없다	89.0	79.3	56.8	55.5	48.2	34.0
있다	11.0	20.7	43.2	44.5	51.8	6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장애인의 컴퓨터 보급률을 조사한 최근의 자료로는 한국전산원이 2000년 11월에 발표한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42.8%였으며 컴퓨터 구입의사를 참고로 추정된 결과 장애인 집단의 69.3%가 향후에 컴퓨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과정에 실시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11.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7>). 이는 장애인의 범주를 개정된 법률이 정해 놓은 바와 같이 확대 조사함으로써 장애인의 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6) 한국전산원은 장애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체 103명, 뇌병변 36명, 시각 74명, 청각언어 50명으로, 남자가 263명, 여자는 118명으로 전체 381명을 조사대상자로 했다.

<표 3-27> 장애유형별 컴퓨터 보유 현황-전국

(단위: %)

컴퓨터 보유여부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있다	13.1	6.6	13.0	6.6	9.6	11.1	20.5	1.4	15.1	5.6	10.6
없다	86.9	93.4	87.0	93.4	90.4	88.9	79.5	98.6	84.9	94.4	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현재의 컴퓨터 보유율보다도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국적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컴퓨터에 대한 구매 욕구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이다(<표 3-28>). ‘꼭 필요하다’와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30.4%며, ‘없어도 된다’는 69.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데, 사회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 가능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과 정보화 마인드 교육이 있어야겠다.

<표 3-28> 장애유형별 컴퓨터 필요성

(단위: %)

컴퓨터 필요성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꼭필요하다	19.0	9.0	18.8	10.2	15.7	18.7	34.7	2.8	23.7	10.4	15.8
있으면좋다	17.5	10.5	14.4	9.3	14.6	17.8	21.3	17.8	13.9	14.3	14.6
없어도된다	63.4	80.5	66.8	80.5	69.7	63.4	44.0	89.7	62.4	75.4	6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제주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62.3%는 가정에 컴퓨터가 있으며, 보유 기종은 펜티엄Ⅲ(25.6%), 펜티엄Ⅱ(16.3%) 순이다(<표 29>).

<표 3-29> 컴퓨터 보급률과 보유기종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있으나 모르겠음	22	25.6
	486급	11	12.8
	펜티엄 I	11	12.8
	펜티엄Ⅱ	14	16.3
	펜티엄Ⅲ	22	25.6
	펜티엄Ⅳ	1	1.2
	국민컴퓨터	5	5.8
	합계	86	100
결측	없음	50	
	무응답	2	
	합계	52	
합 계		138	

컴퓨터가 없다고 답한 5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표 3-30>) 86.3%는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리나라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장애인들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보급률은 물론 컴퓨터 보유 욕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욕적이라 하겠다. 도내 장애인의 컴퓨터 보급률과 컴퓨터 구매 의사 등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정보화 마을²⁷⁾ 추진사업을 비롯

하여 정보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우체국, 마을회관 등에 보편적 접근을 위해 설치돼 있는 컴퓨터 시설들이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1997: 5)은 Batteau(1995)의 사례 연구를 인용해 정보화 시대의 불평등이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의 정도와 관련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을 지적한다. 즉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편견들은 교육이나 주위환경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자본의 부족 즉,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문화적 친숙성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차이는 컴퓨터 비이용 이유와 인터넷 비이용 이유에 있어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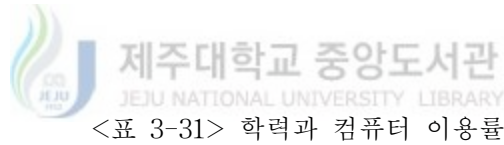
 <표 3-30> 컴퓨터 구매 의향 조사

컴퓨터 구매의향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구입함	빈도(명)	36	1	3	1	1	1	44
	퍼센트	90.0	50.0	60.0	100.0	100.0	100.0	86.3
구입 않함	빈도(명)	4	1	2	-	-	-	7
	퍼센트	10.0	50.0	40.0	-	-	-	13.7
전체	빈도(명)	40	2	5	1	1	1	51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 정보화 마을이란 도시, 농어촌 등 정보소의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실생활 및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97년도 부터 농촌 지역에 정보화의 혜택을 늘이기 위해 최초로 제주도의 농어촌 마을 172개 마을에 PC, 프린터, 사무용집기 등을 보급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보마을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다(제주도, 2001a: 52; 2001d).

(2) 컴퓨터 이용현황

높은 컴퓨터 보급률과 달리 컴퓨터 이용 경험은 매우 낮게 조사됐는데 컴퓨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76명으로 55.9%에 머물렀고 한번도 컴퓨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장애인도 60명으로 44.1%에 이른다. 즉 조사 대상자의 두 명중 한 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컴퓨터 이용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이용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당 수입에 있어 1백만원 미만의 가구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46.9%)보다 이용하지 않는 비율(53.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백만 원 이상부터는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구당 수입과 컴퓨터 이용률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학력과 컴퓨터 이용과의 관계			학 력						전체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컴퓨터 이용 여부	이용 함	빈도	4	6	43	9	11	1	74
		학력	28.6	25.0	64.2	69.2	84.6	100.0	56.1
		전체	3.0	4.5	32.6	6.8	8.3	0.8	56.1
	이용 않함	빈도	10	18	24	4	2	-	58
		학력	71.4	75.0	35.8	30.8	15.4	-	43.9
		전체	7.6	13.6	18.2	3.0	1.5	-	43.9
전체		빈도	14	24	67	13	13	1	132
		학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6	18.2	50.8	9.8	9.8	0.8	100.0

학력과 컴퓨터 이용과의 관계는 <표 3-31>과 같다. 이 두 요소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이용률도 높으며 정보 리터러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은 ‘정보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35.1%), ‘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18.9%), ‘호기심 때문에’(13.5%)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표 3-32>), 현재는 ‘정보습득’(46.7%), ‘여가시간 활용’(25.3%)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표 3-33>)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⁸⁾

<표 3-32> 컴퓨터 이용 동기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호기심때문에	10	13.5
	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14	18.9
	시대의 흐름이므로	26	35.1
	주변사람이 이용하므로	9	12.2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서	7	9.5
	움직임이 불편해서	3	4.1
	기타	5	6.8
	합계	74	100.0
결 추		64	
합 계		138	

28) 최초의 컴퓨터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00-102)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28.1%),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24.8%), 그리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20.2%),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12.0%) 등의 순이었다.

<표 3-33> 현재 컴퓨터 이용 목적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공부에 이용하기 위해	6	8.0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6	8.0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19	25.3
	정보습득	35	46.7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5	6.7
	기타	4	5.3
	합계	75	100.0
결 측		63	
합 계		138	



즉 비장애인, 장애인할 것 없이 매스컴을 비롯한 각급 언론에서 컴퓨터를 정보화의 기수인 것처럼 소개하고 실생활에서도 컴퓨터를 다룬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것에 이끌려 시작했으며, 현재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유희의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학습의 목적’(8.0%)이나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8.0%)을 위한 목적으로는 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102-103)의 조사에서와 매우 흡사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⁹⁾ 즉 컴퓨터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적극적 보조수단으로 역할을

29) 컴퓨터 이용자 1,513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 등 직장의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28.6%, 그리고 ‘공부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18.3%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정의 정보관리용’은 7.5%,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함께 기업체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 IT분야를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시키는 사회적으로 더욱 풍부한 인력풀(pool)을 형성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키는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다. 제주지역의 경우 마을 정보센터의 운영을 IT교육을 이수했거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지역의 장애인을 근무케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3) 컴퓨터 비이용 이유

<표 3-34> 컴퓨터 비이용 이유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사용용도를 몰라서	3	5.3
	복잡하고 어려워서	22	38.6
	필요가 없어서	5	8.8
	이용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	17.5
	배우기 싫어서	2	3.5
	신체적 조건 때문에	1	1.8
	컴퓨터가 없어서	14	24.6
	합계	57	100.0
결측	합계	81	
합 계		138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는 5.6%다.

누구에게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장애인은 신체적 불편함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복잡하고 어렵다’(38.6%)는 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다음은 ‘컴퓨터가 없어서’(24.6%)로 이는 장애인들의 활동이 부자유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와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³⁰⁾ 컴퓨터 기기의 가격,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등 일체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17.5%), ‘필요가 없어서’(8.8%) 등도 조사대상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였다(<표 3-34>).

4) 장애인과 인터넷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은 정보화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의 이용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표 3-35> 연도별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이용자수(천 명)	366	731	1,634	3,103	10,860	19,040

자료: 한국전산원(2001)

3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워서’(30.5%), ‘필요성이 없어서’(26.8%), ‘시간이 없어서’(26.0%),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7.6%)의 순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27-129).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전산원, 2001)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1999년 이후 급속하게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여 1998년 세계 23위에서 1999년 10위로 급부상 하였고, 2000년에는 인구 1,000명당 403명 수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 규모에 있어서도 1천 9백만 명으로 인구단위당 순위와 마찬가지로 5위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 정도와 용도,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인터넷 가입 정도에 대한 파악은 실시되지 못한 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각종 통계자료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10%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다(제주일보, 2001. 9. 12).³¹⁾ 이를 2000년 2월의 경우(<표 3-36>)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할 있으나 전국 평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13%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많은 제주도 가정의 정보화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36> 초고속 인터넷 망 가입자수(가입자수/인구수: 2000. 2)³²⁾

서울	7.51%	경기도	4.24%
인천	7.15%	제주	2.77%
부산	6.40%	강원	2.71%
대구	6.33%	전남	2.46%
광주	6.03%	전북	2.19%
대전	5.69%	경북	2.18%
울산	4.41%	충남	2.13%

자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외(2001)

31) 제주일보에 따르면 이 자료는 2001년 9월 11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한 것임.

32) 김효석 의원, 국정자료집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과는 별도로 인터넷 이용률(<표 3-37>)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12월 현재 44.4%로 서울과 인천·경기에 이어 높은 이용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년 8월 대비 증가율은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전산원, 2001). 인터넷 가입률은 낮아지면서도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감때문으로, 월 평균 가구당 수입이 다른 대도시보다는 낮기 때문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보다는 학교 및 공공기관을 시설을 이용해 인터넷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37>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

구 분	이용률(%)		이용자 수(만명)	
	99. 10	2000. 12	99. 10	2000. 12
서울	24.0	51.8	223	485
인천·경기	24.2	49.8	236	503
부산·경남	25.7	42.8	183	306
대구·경북	22.2	34.7	106	167
광주·호남	17.2	38.7	95	193
대전·충남	18.4	40.2	78	173
강원	11	40.6	15	57
제주	29.4	44.4	13	21

자료: 한국전산원(2001)

그러나 2005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부터는 농어촌 및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의 초고속정보통신 지원을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서 보전하여 현재의 음성전화처럼 누구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외, 2001: 24-25)하게 된다. 제주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 가입률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높은 이용률과 맞물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현재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6.9%로서 남자는 9.0%, 여자는 3.6%인 반면, 2000년 8월 현재 비장애인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44.4%, 여성의 경우 32.6%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화 수준에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10대가 29.9%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대, 30대 순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감한다. 특히 60대 이상인 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60대가 0.7%, 70세 이상이 0.2%로 매우 낮다.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으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 노인이나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조속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변용찬, 2001: 102-103).

조사대상자(129명)의 경우 44.2%(57명)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성별(<표 3-38>)로는 남성이 45.9%, 여성이 39.5%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표 3-39>)로는 신장, 언어, 청각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뇌병, 시각,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은 인터넷 사용이 전무하다.

<표 3-38> 인터넷 이용-성별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인터넷 이용 여부	이용한다	빈도	39	17	56
		인터넷 이용 여부	69.6	30.4	100.0
		성별	45.9	39.5	43.8
		전체	30.5	13.3	43.8
	이용하지 않는다	빈도	46	26	72
		인터넷 이용 여부	63.9	36.1	100.0
		성별	54.1	60.5	56.3
		전체	35.9	20.3	56.3
전체		빈도	85	43	128
		인터넷 이용 여부	66.4	33.6	100.0
		성별	100.0	100.0	100.0
		전체	66.4	33.6	100.0

장애인의 경우도 학력은 정보화 욕구와 마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것으로 여타의 조사(한국전산원, 2000b: 67)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가 대체로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경계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들간에도 정보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표 3-40>).

<표 3-39> 인터넷 이용-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장 애 유 형								전 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인 터 넷 이 용 여 부	이 용	빈도	43	-	-	9	1	-	-	1	2	56
		유형	43.0	-	-	64.3	100.0	-	-	50.0	100.0	44.1
		전체	33.9	-	-	7.1	0.8	-	-	0.8	1.6	44.1
	이 용 않 함	빈도	57	5	1	5	-	1	1	1	-	71
		유형	57.0	100.0	100.0	35.7	-	100.0	100.0	50.0	-	55.9
		전체	44.9	3.9	0.8	3.9	-	0.8	0.8	0.8	-	55.9
전 체	빈도	100	5	1	14	1	1	1	2	2	127	
	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7	3.9	0.8	11.0	0.8	0.8	0.8	1.6	1.6	100.0	

연령별(<표 3-41>)로는 40대와 20대가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50대 이상의 노인 인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제주도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정보화가 심각함을 드러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용기간에 있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최근 1~2년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것(1999년 45.4%, 2000년 18.0%, 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162-163)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사용기간은 평균 17개월 가량이며 12개월(24.1%) 정도 이용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확산된 시기를 반영한다고 봐진다(<그림 3>).

<표 3-40> 인터넷 이용-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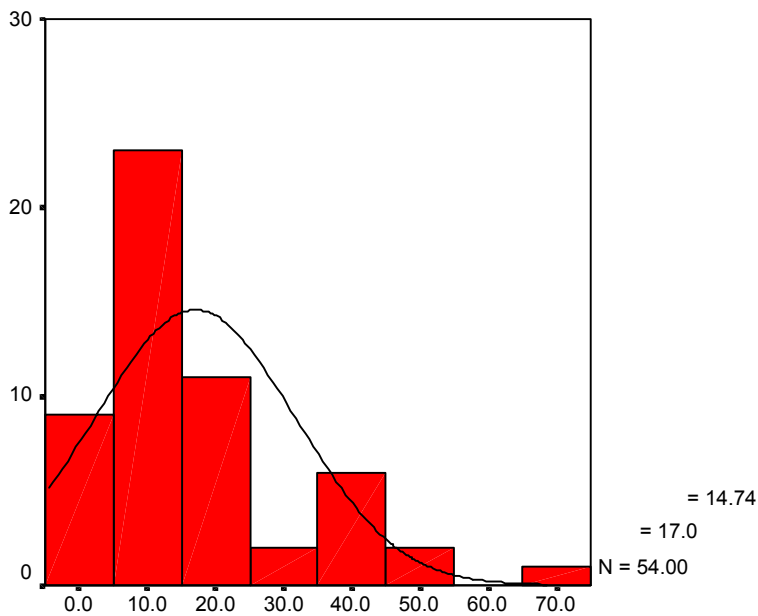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학 력					전 체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 이상
인터넷 이용 여부	이용 한다	빈도	2	1	33	9	9	1	55
		학력	15.4	4.8	50.0	75.0	69.2	100.0	43.7
		전체	1.6	0.8	26.2	7.1	7.1	0.8	43.7
	이용 하지 않는다	빈도	11	20	33	3	4	-	71
		학력	84.6	95.2	50.0	25.0	30.8	-	56.3
		전체	8.7	15.9	26.2	2.4	3.2	-	56.3
전 체		빈도	13	21	66	12	13	1	126
		학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3	16.7	52.4	9.5	10.3	0.8	100.0

<표 3-41> 인터넷 이용-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19	20~29	30~39	40~49	50~59		60 이상
인터넷 이용 여부	이용 한다	빈도	1	12	28	11	2	1	55
		연령	100.0	50.0	46.7	55.0	15.4	20.0	44.7
		전체	0.8	9.8	22.8	8.9	1.6	0.8	44.7
	이용 하지 않는다	빈도	-	12	32	9	11	4	68
		연령	-	50.0	53.3	45.0	84.6	80.0	55.3
		전체	-	9.8	26.0	7.3	8.9	3.3	55.3
전 체		빈도	1	24	60	20	13	5	123
		연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0.8	19.5	48.8	16.3	10.6	4.1	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 3> 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의 이용용도(<표 3-43>)에 대해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취미와 관련한 정보의 습득’(32.1%)을 들었고 다음으로는 ‘여가 시간을 활용’(30.4%)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 주고받기’(10.7%), ‘학습정보를 습득하기 위해’(10.7%), ‘장애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8.9%) 등의 순이었는데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164)의 조사(<표-4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42> 인터넷 이용용도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중복
아는 사람과 의견 / 메세지교환	13.6	11.8	25.2
여가시간 활용	30.0	22.1	51.8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	2.6	6.4	8.9
일상생활 / 취미관련 정보획득	20.9	26.4	46.9
업무상 의견 / 메시지 / 문서교환	11.6	6.5	18.0
업무 / 사업 / 투자 / 취업 / 관련 정보획득	8.5	9.8	18.3
학업 / 연구 / 정보 획득	12.1	14.9	26.9
예약 / 홈뱅킹 등 거래서비스 이용	0.4	1.7	2.1
기타	0.3	0.4	0.7
전체(인터넷 이용자)	100.0	100.0	-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표 3-43>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용도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메시지 주고 받기	6	10.7
	여가시간 활용	17	30.4
	사람 사귀기	1	1.8
	취미관련정보 습득	18	32.1
	학습정보습득	6	10.7
	장애인관련정보 습득	5	8.9
	신체적 불편함의 보완	2	3.6
	기타	1	1.8
	합계	56	100.0
결측	합계	82	
합 계		138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조사대상자 69명 중 36.2%가 ‘컴퓨터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이용비용 때문에’(18.8%),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17.4%)의 순이었다(<표 3-44>).

<표 3-44> 인터넷 비이용 이유 I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기때문에	25	36.2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12	17.4
	필요성이 없어서	3	4.3
	이용비용때문에	13	18.8
	배우기 싫어서	7	10.1
	영어를 몰라서	4	5.8
	신체적 장애때문에	2	2.9
	기타	3	4.3
	합계	69	100
결 측		69	
합 계		138	

이를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170)의 조사 결과(<표 3-45>)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이용방법을 모르고’(42.1%)³³⁾,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32.25)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인 것은 공통적 사항이지만 제주지역 장애인의 경우 이용비용

33) 한국전산원(2000b: 80)의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와 흡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많은 장애인들은 ‘사용할 줄 모름’(27.3%)이 인터넷 이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체조건때문에’(21.6%), ‘필요성이 없다’(12.9%), ‘문맹이라서’(7.2%)의 순이다.

에 대한 부담과 ‘배우기 싫어서’(10.1%)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한다는 것이다.

<표 3-45> 인터넷 비이용 이유Ⅱ

구 분	퍼센트	구 분	퍼센트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8.4	이용비용때문에	9.1
이용 방법을 몰라서	42.1	배우기 싫어서	1.4
필요성이 없어서	32.2	접속이 느려서	0.5
유용한 내용이 없어서	1.4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2.4
컴퓨터가 없어서	0.8	기타	0.3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1.4	전체(인터넷 비이용자)	100.0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2000b)



이는 산업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 즉 정보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차후에 더욱 그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은 산업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복합적 빈곤층’의 위치에 있게됨을 명심해야 한다(<표 3-46>).³⁴⁾

복합적 빈곤층의 모습은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포괄하는 ‘사회자본’ 격차의 문제로 나타난다(김종철, 1997: 6-7). 사회자본이란 사회적 관계의 망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자본이 많은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의 망으로부터 사회자본이 적은 사람보다 더욱 많은 양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정보화 사회

34) ‘복합적 빈곤층’이라 함은 ‘지적 빈자’와 ‘절대 빈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결합에 의한 전자네트워크의 출현으로 특징지워 지는데, 이것은 정보화 사회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도 과거와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정보불평등의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불평등의 결과가 단순히 정보격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만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정보화 사회의 가지지 못한 자는 일차적으로 정보의 빈곤으로부터 다음으로는 정보의 빈곤으로 인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마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동원 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표 3-46>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네 가지 유형

지식정보 물적자원	소 유	비 소 유
소 유	절대부자	지적빈자
비소유	물적빈자	절대빈자

출처: 김문조(1998)

그러므로 우리도 정보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관련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혹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요금 지원 이전이라도 이들이 이용하는 단체의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을 우선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산원, 2000c: 112-113).

조사에서 장애라는 핸디캡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터넷 이용을 묻는 질문에는 73.2%(52명)가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26.8%(19명)만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인터

넷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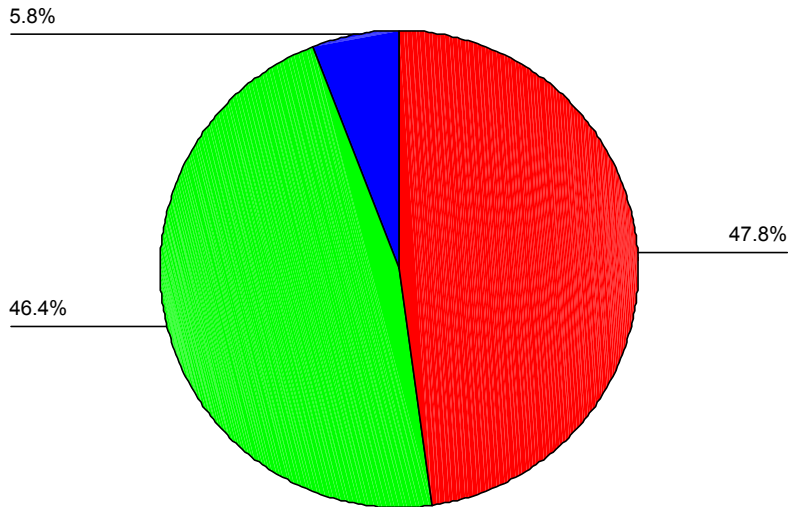
5) 정보화 교육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일반국민이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정보통신 교육은 정부산하 공공교육기관, 기업 교육기관, 사설 컴퓨터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교육장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장까지 접근하는 환경문제, 교육시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공공 교육장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31)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약 4할 정도가 컴퓨터와 관련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73), 성별 컴퓨터 교육 이수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의 교육 이수율이 아직도 낮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층의 이수율이 낮았는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할 대상은 30대 이상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농/임/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7> 컴퓨터교육 이수 여부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예	66	50.8
아니오	64	49.2
전체	130	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4> 컴퓨터 교육 이수 여부

컴퓨터교육 이수를 묻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130명) 중 50.8%(66명)은 교육을 받은 반면 나머지 49.2%는 컴퓨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표 3-47>, <그림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의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도·시·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경우에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컴퓨터 교육 이수 여부와 컴퓨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이수자들은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71.0%)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8>).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화 교육장소라 할 수 있는 학교(13.0%)와 사설학원(14.5%)을 통한 교육은 매우 저조했다. 반면에 공공기

관(5.8%)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은 설문지에 주어진 네 곳의 장소(기타 제외) 중 가장 이용률이 낮았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정해진 장소에서의 교육과 교육 시간의 부적절함 등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추진한 2000년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도, 2000d). 우선 교육장소별로는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도민정보센터, 마을순회교육,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이 이용되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육이 4,11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육기간과 시간에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한 읍·면지역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행해졌으며(방학기간은 2회), 도민정보센터는 2000년 7월 31일부터 12월까지(교육일수: 10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는 농촌의 경우 농번기와 겹치는 시간이며 시 지역의 경우도 낮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내 장애인들은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않았다.

<표 3-48> 컴퓨터 교육 이수기관(중복응답 포함)

구 분	빈도(명)	퍼센트
학교(정규수업)	9	11.8
사설학원	10	13.2
공공기관	8	10.5
복지시설	49	64.5
계	76	100.0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표 3-49>)에 대해 응답자들은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31.3%)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관심이 없어서’(23.4%),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23.4%)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순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답하였다. 이는 곧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와 함께 정보화마인드의 부족도 문제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의 불편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역적으로 가까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체적 장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수준별 개인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반해 이런 요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극히 소수의 복지회관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유형별로 컴퓨터 관련 교육 참여시의 불편사항(한국전산원, 2000b: 97)을 보면 ‘특수장비, 수화통역 등 교육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23%)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내용이 어렵다’(21%), ‘교육장까지의 이동 및 편의 시설이 부족함’(6%)을 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한국전산원, 2000b: 102)로 ‘교육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족’이 28.0%, ‘교육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20.1%, ‘교육장이 주위에 없어서’가 17.9%,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12.3%, 그리고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가 10.4%였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원인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지만 장애인들은 한정된 교육기관과 경제적 원인, 컴퓨터 관련지식의 부족,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⁵⁾

35) 정부는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음성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인터넷 도구 및 웹 사이트와 지체장애인 전용 화면키보드, 장애인 디지털 방송기술 등의 개발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2003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컴퓨터 교육장을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강화키로 했다(한국전산원, 2000c: 3).

<표 3-49>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관심이 없어서	15	23.4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므로	4	6.3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	15	23.4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	20	31.3
비싼 교육 비용	3	4.7
이동이 불편해서	5	7.8
기타	2	3.1
합계	64	100.0

6)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PC방 이용정도를 들 수 있다.

PC방은 시간당 1~2천 원 정도의 가격에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곳으로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PC방은 전국적으로 1만 5천여 개정도 있고, 이용자가 5백만 명에 이르며, 그리고 매출액이 1천억 원 대가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PC방은 3여 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의 우려와는 달리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가나 취미활동은 물론 주식투자 및 회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의 복합적인 인터넷 이용장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PC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79-180).

PC방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6.7%가 이용 경험이 있고, 나머지 73.3%

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PC방 이용 정도(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80-181)와 흡사하다.³⁶⁾ 그리고 PC방 이용 경험자들은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PC방 내의 환경’(42.6%)과 ‘계단 사용’(31.9%) 등에 대해 큰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안함은 응급 상황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정보화 시대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기의 도움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은 긴급상황시 구조요청 조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89.4%)으로 드러났으며, 구조요청에 대한 조치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대다수는 이동전화의 문자서비스를 들고 있다. 장애인들의 긴급상황시 구조대책은 장애인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이 연계해 장애인들을 위험상황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³⁷⁾



36) PC방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21.8%가 이용경험이 있고, 나머지 78.2%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순천소방서는 전화로 응급구조요청이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 97년 4월부터 119전용 무선호출기와 팩스를 설치하고, 거주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정번호를 부여 관리해 두었다가 구조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즉시 파악해 출동하는 등 소방서비스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정보통신부, 1998).

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보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고, 제주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복지정보통신의 확대 정도를 가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 정도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상에, 분석방법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으며, 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 글의 주된 작업을 이룬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복지정보통신정책,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은 ‘정보화 도시’, ‘장애인 복지도시’와는 거리가 있음이 공중전화 보급률, 컴퓨터 이용률과 보급률의 차이, 법적 장애인 감면혜택의 홍보정도, 컴퓨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기초적 단계인 보편적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 보편적 설계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한 나머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까지도 내포하는 것이다.

경험적 조사 결과 자료분석에서 논의된 제주지역의 복지정보통신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장애인들은 타 지역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접근과 보편적 설계의 측면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다. 보편적 설계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인 만큼 제주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독자적으로 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통신기기를 지역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가장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편적 설계는 비록 전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 재정 등의 유기적 조합을 통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다. 제주지역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 서비스 혹은 복지정보통신을 위한 보편적 접근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우선 음성전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기본선로)의 구축은 일정 부분 완성되었으나 시각장애이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이용 음량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 전화기(청각장애이용 전화) 등 장애인 혹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 기회가 너무나 한정돼 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보통신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격리, 소비자(장애인, 노인)의 수적 한계, 이윤창출의 가능성 희박이라는 시장논리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중전화에의 접근 또한 장애인, 노인,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장애인의 수, 노인인구의 비율에 있어 시 지역에 버금가지만 보편적 접근의 기회가 더 한정되어 있다. 전체 거주 인구수 및 공중전화 1실 당 이용정도·이익만을 고려한 통신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군·읍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를 복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수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 인구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그 설치 정도를 가늠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은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일반 유선전화 이후 최근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통신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필요시 되는 것이 이동전화다. 이동전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는 생활의 편의 기능을 넘어 응급상황을 위한 필수품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가

능한 정보통신기기다. 문제는 다양한 기기의 개발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기·서비스 이용료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추구하는 바가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가격보조정책을 활용한 기기의 가격 인하 조치와 이용료 감면 혜택이라는 두 요소의 상호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기회에 있어서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컴퓨터 보급률과 컴퓨터 이용률을 통해 드러나는데 컴퓨터의 이용률이 컴퓨터 보급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민정보센터, 정보화 마을 등의 설치는 외관상 도민들의 보편적 접근 문제를 다소 완화해 주기는 했으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지역의 정보화 교육은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 주도의 정보화 교육은 주로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한시키고 있다. 조사대상들 대다수가 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정보화 교육을 받았으며 정보화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기관의 부재를 최우선으로 들고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보화 교육은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과 노인을 다시 한번 소외시키는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복지의 정보화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대상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험적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 전국적 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할 때 컴퓨터 보유율과 함께 컴퓨

터 구매욕구, 컴퓨터·인터넷의 사용 등 정보화 부문에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보다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무관심, 컴퓨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장애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직접적,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필요성, 편리성, 교육과정, 사이버 세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정보화 현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요컨대, 정보격차 해소, 복지정보통신의 구현을 위해서는 PC 및 인터넷 사용법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만큼 제주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복지적 측면을 포함하는, 그래서 정보화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염두에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기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 강화라는 정보통신의 복지화 부문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직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함양,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의 점진적 완화, 생산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복지의 정보화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 모색이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태환·조형제·한상진 편. 2000.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 김규원. 1999. “정보사회의 불평등.”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 김기태·박병현·최송식. 2000.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김문조. 2000. “정보사회 : 본질과 유형.”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세계사.
- _____. 1999.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원동·손연기. 2000. “한국의 지역정보화 정책.”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세계사.
- 김정열. 1997. “장애인과 정보접근권.”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사회와 장애인』.
- 김종철. 1997.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1999.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세계 변화.”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 나운환. 1999. 『복지정보체계론』. 홍익재.
- 남세진·조홍식. 1999.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 박형준. 1996.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박영률출판사.
- _____. 1999. 『21세기의 이해』. 동아대학교출판부.
- 변용찬. 2001.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방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배규한·임창규. 2000. “한국 5대도시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격차.”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세계사.

- 보건복지부. 2000. 『2000보건복지백서』 .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 사회과학연구회 편. 1995. 『정보화사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 사회과학연구소 편. 1990. 『이데올로기와 정보화사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서이중. 1998. 『지식 · 정보사회학』 .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
- _____. 2001. “정보격차란.”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화로 가는 길』 제45호.
- 유재천. 2000. “정보복지사회의 구현.” 한국전산원. 『정보화저널』 제7권 제1호.
- 윤동성 · 이영철 · 박미은 · 엄기욱 · 이용교. 2000. 『사회복지학』 . 양서원.
- 윤영민. 1997. 『전자정보공간론』 . 전예원.
- 원우현. 2000. “정보화사회와 문화.”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 소화.
- 이민호. 1992. “보편적 서비스 정책: 이론과 응용.”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 논문.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2000. 『사회복지개론』 . 유평출판사.
- 전석호. 1999.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혁명과 뉴미디어』 . 나남출판.
- 정대연. 1996. 『기초사회통계학』 . 백산서당.
- 정보통신부. 1998. 『복지정보통신 연구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
- 정재균. 1994. “통신사업자 민영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외. 2001.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 제주도. 2000. 『제40회 제주통계연보』 .
- _____. 2001a.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
- _____. 2001b. 『2001 보건복지행정현황』 .
- _____. 2001c. 『2001 주요행정총람』 .
- _____. 2001d. 『정보화 관련 도의회 보고자료』 .

- 조정문. 2001.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 제8권 2호.
- 조주은. 1998.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1998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지역사회학회 편. 2000. 『정보화와 지역발전』. 지역사회학 제2호. 한울.
- 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한국전산원. 1995.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 _____. 1997.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 _____. 2000a. 『2000 국가정보화백서』.
- _____. 2000b. 『소외계층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 _____. 2000c.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 _____. 2000d.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 _____. 2001. 『2001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복지정보통신』. 조사분석서97-01.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5.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_____. 1997. 『정보사회와 장애인』.
- _____. 2000a. 『정보화로 가는 길』 제37호.
- _____. 2000b.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 _____. 2001. 『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6. 『정보화사회』 7.

<번역서>

- 리온(David Lyon).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역.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벡(Ulrich Beck). 1997. 『위험사회』 . 홍성태 역. 새물결.
- 토플러(Alvin Toffler). 1996. 『제3의 물결』 . 이계행 역. 한국경제신문사.
- 드러커(Peter F. Drucker). 1999.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사.
- 웹스터(Frank Webster). 1998. 『정보사회이론』 . 조동기 역. 나남출판.
- 실러(Herbert I. Schiller). 1992.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 강현두 역. 나남.
- M. Castells.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Web Site>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제민일보 www.cheminilbo.co.kr
- 제주도 www.cheju.go.kr
- 제주일보 www.chejunews.co.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한국전산원 www.nca.or.kr
- 한국정보문화센터 edu.info21.or.kr
- 한라일보 hallailbo.co.kr
- www.universalservice.org
- www.digitaldivide.gov
- www.ntia.doc.gov
- www.benton.org

<부록> 질문지

장애인의 정보화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보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의 정보격차의 정도와 함께 복지정보통신의 보편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와 복지화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쁘고 귀찮으시더라도 복지정보, 정보격차없는 사회의 형성에 일조하신다는 생각으로 본 질문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해주시는 많은 장애인 여러분들과 관련 복지기관 담당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변에 불이익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며 학문연구만을 위해 소중하게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5.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전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064)754-2780
석사과정 김남진

1. 귀하께서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사항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신문(광고 포함)
- ② TV, 라디오 등의 방송(광고포함)
- ③ 학교의 교육
- ④ 주변 사람들(가족 포함)
- ⑤ 책이나 잡지
- ⑥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 ⑦ 관련 복지회관
- ⑧ 기타()

2. 귀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간 정보화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 ① 차이가 없다
- ② 조금 차이가 난다
- ③ 차이가 심하다
- ④ 모르겠다

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래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간의 정보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까?

- ① 차이가 없을 것이다
- ② 조금의 차이는 계속 될 것이다
- ③ 차이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 ④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장애인의 정보교육 강화
- ② 다양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보급
- ③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가격 인하
- ④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조성(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단체 등의 정보화)
- 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⑥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 ⑦ 기타()

5.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시는데 있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보통신기기의 간편화
- ② 정보통신기기의 다기능화
- ③ 정보통신기기의 가격인하

- ④ 전문 A/S센터의 증설
- ⑤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
- ⑥ 제품의 다양화
- ⑦ 기타()

6. 귀하께서 일반 정보통신기기 혹은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p>*****보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방법이 복잡하다 ② 너무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졌다 ③ 판매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④ 가격이 비싸다 ⑤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어렵다(A/S가 어렵다) ⑥ 최신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 ⑦ 기타
--

7. 귀하의택에는 (일반 유선)전화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9>로 가십시오.

8. 귀하의 한달 평균 전화요금은 얼마입니까?

- ① 10,000원 미만 ② 10,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 ③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④ 30,000원 이상 ~ 40,000원 미만
- ⑤ 4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⑥ 50,000원 이상

9. (일반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 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설치비가 비싸서 ② 이용료의 부담 때문에
- ③ 필요가 없어서 ④ 기타

17.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텔레비전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비싸서
- ② 이용료가 부담이 되므로
- ③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므로
- ④ 필요가 없어서
- ⑤ 기타()

18. 귀하께서는 자막방송 TV수신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갖고 있다.
- ② 갖고있지 않다

19. (자막방송 TV수신기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 자막방송 TV수신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비싸서
- ② 판매하는 곳을 몰라서
- ③ 필요가 없어서
- ④ 기타()

20. (자막방송 TV수신기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여건이 된다면 자막방송 TV수신기를 구입하시겠습니까?

- ① 구입하겠다
- ② 구입하지 않겠다

21. 귀하께서는 이동전화(휴대폰, PCS)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으로 가십시오.

22. 귀하의 한달 평균 이동전화 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000원 미만
- ②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 ③ 30,000원 이상~40,000원 미만
- ④ 4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 ⑤ 50,000원 이상

23. (이동전화 없는 경우) 귀하께서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체적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 ② 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 ③ 이용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 ④ (미성년자라)부모님의 동의가 없어
-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기타()

⑥ 국민 PC ⑦ 있으나 기종을 모름 ⑧ 없음

33. 귀하는 어떤 이유로 처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 ② 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 ③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하여
- ④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 ⑤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 ⑥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 ⑦ 기타()

34. 귀하가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부에 활용하기 때문에
- ②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 ③ 컴퓨터를 활용해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 ④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 ⑤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 ⑥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 ⑦ 기타()

35.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 ② 복잡하고 어려워서
- ③ 필요성이 없어서
- ④ 이용비용이 많이 들어서(컴퓨터 가격, 통신, 인터넷 비용 등)
- ⑤ 배우기 싫어서
- ⑥ 신체적 조건 때문에(신체적 조건에 맞는 컴퓨터가 없어서)
- ⑦ 집에 컴퓨터가 없으므로
- ⑧ 기타()

36. (컴퓨터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여건이 된다면 컴퓨터를 구입하시겠습니까?

- ① 구입하겠다
- ② 구입하지 않겠다

55.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귀하가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컴퓨터에 관심이 없어서
- ②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므로
- ③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몰라서
- ④ 적당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 ⑤ 교육비용이 비싸서
- ⑥ 이동이 불편해서
- ⑦ 비장애인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 ⑧ 기타()

56. 귀하께서는 음성손목시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사용) ▷<문59>로 가시오. ② 아니오(미사용)

57. (음성 손목시계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 음성손목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가 없어서 ② 있는 줄 몰라서
- ③ 가격이 비싸서 ④ 기타()

58. (음성 손목시계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여건이 되신다면 음성손목시계를 구입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9. 귀하께서는 (장애인의)화재나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조요청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조치를 하고 있다.(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_____)
- ② 대책이 없다

60.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6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62.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지체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6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졸이상

6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개인사업자 ④ 주부 ⑤ 무직 ⑥ 기타 ()

65. 귀댁(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한달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백만 원 미만
② 1백만 원 이상~1백50만 원 미만
③ 1백50만 원 이상~2백만 원 미만
④ 2백만 원 이상~2백50만 원 미만
⑤ 2백50만 원 이상~3백만 원 미만
⑥ 3백만 원 이상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